

“안 보이는 것 말고는 문제가 없었어요”



서미화 전 목포시의원, 시각장애 딥고 조선대서 박사 학위
“장애인 차별 부르는 정책 바꾸고 평등사회 구현 앞장설 터”

50대 만학도 여성이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11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목포시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서미화씨(54·여)가 조선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분야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씨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망막색소변색증으로 집중시력을 잃게 되면서 책을 읽을 수 없고, 노트 필기도 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서씨는 “중·고등학교

때 일반학교를 다녔었는데 당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었고, 비장애인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겨우 정규교육 과정을 마쳤다”고 회상했다.
서씨는 결국 대학입시에서 당시에는 장애 학생을 배려하지 않은 시험 제도 때문에 입학이 좌절됐다.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잃은 그를 다시 일으킨 계기는 바로 ‘교통사고’였다.
서씨는 30대에 교통사고로 팔, 다리가 심하게 골절되어 병원에 약 6개월 간 대·소변도 스스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꼼짝없이 누워있게 됐다.
병원에 있으면서 서씨는 여태 잘 안 보이는 것 말고는 다른 신체 기능이 모두 건강했다는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됐다.

이후 서씨는 36세의 나이에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편입을 했다.
이후 그는 전남지역에서 자신과 같은 장애여성들과 함께 장애여성 인권운동을 시작했다.
서씨는 전남에서 최초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개소했으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공동대표, 사단법인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그는 여성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뿐 아니라 성폭력으로 학대받는 여성장애인 인권을 대변하고 구제하는 활동에 최선을 다 해 왔다.
서씨는 장애여성들을 위한 활동을 발판으로 지난 2010년 장애인 직능대표로 목포시의회 9대 의원으로 당선됐다.

시의원이 된 그는 보다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박사과정 대학원 입학에 하고자 여러 대학의 문을 두드렸으나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각장애 학생을 접해본 경험이 없어 입학하는데 난항을 겪었다.
마침내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행정복지학부)에서 서씨의 박사과정 입학을 허용했다.
서씨는 “대학의 도움을 받아 박사과정을 밟으며 전문성을 길렀고, 덕분에 의정활동 중 장애인 인권보장조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등 10여 가지가 넘는 장애인 관련 조례 개정과 다양한 정책 제안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을 인정받아 서씨는 지역의원 중 최우수의

원으로 선정되어 각종 표창을 수상했고, 지난 2012년에는 미국 국무부의 초청을 받아 국제지도자과정 세미나에도 참석했다.
그는 박사과정 수료 후 박사논문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역경을 거쳤으나, 지도교수의 배려로 장애 요소를 극복, 마침내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됐다.
올해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박사학위논문(지도교수 김용섭, 공동지도교수 박희서)을 무사히 마무리했다.
그는 “일반 자료를 시각장애인이 습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 조사·분석해야 했기에 논문 설계와 연구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비장애인 학생들보다 3~4배는 더 걸렸다”면서 “교수님들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셨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언과 지원을 받아 논문심사를 마칠 수 있었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오유나 기자



“시청각장애인은 음성·문자로 상담”
LG+, 장애인친화 고객센터 구축

LG유플러스가 시청각장애가 있는 고객의 고객센터 이용과 자동응답서비스(ARS) 인증 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친화 고객센터로 개편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각장애인 고객은 고객센터(114) 이용 시 자동으로 실행되는 ARS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 중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하는 등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LG유플러스 고객센터는 시각장애인 고객의 경우 ARS 인증 절차 없이 바로 상담사와 연결해 음성 통화로 상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각장애인 고객은 그동안 상담 시 통화 내용을 전달하는데 대리인이 필요했고, 요즘 남부방범을 변경하거나 서비스 일시정지 및 해지를 요청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 등을 위해 직접 매장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LG유플러스는 청각장애인 고객이 추가 본인인증이 필요한 업무를 요청할 경우 문자 인증으로 대체하고 고객센터 전화 시 자동으로 실행되는 보이스 ARS에서 ‘채팅상담’ 기능을 이용사와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의 황준성 CV 운영담당은 “청각장애인 전용 통화연결을 서비스 무료 제공과 고객센터 기능 개편 등 장애인 고객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에 눈과 귀를 기울여 적극 개선 중이다”라고 말했다.

영암군,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모집

영암군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신청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
이용자격은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중증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로서,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이용시간은 한 달에 24시간(A형), 27시간(B형), 40시간(C형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만 가능)으로 서비스 이용료는 서비스 시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 확대



완도군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특별 교통수단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교통편의 제공 및 이동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1,

2급)이 이용 대상자였으나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와 임신부,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수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 된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추가 구입하여 총 4대를 운영함으로써 이용자의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완도군청 이기석 경제교통과장은 “앞으로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도=김광수 기자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